

‘융복합’과 디드로의 철학*

- 『자연해석론』을 중심으로 -

백 찬 옥
(영남대학교)

1. 들어가며

‘융복합’이란 용어로 정부 차원 또는 대학의 학교 차원에서 이종 학문 간의 융합적이거나 복합적인 연구를 권장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차원의 논의에서 누락할 수 없는 철학자는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인 것 같다. 디드로의 업적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학문이라는 점을 떠나 그가 문학이란 장르에 예술비평을 만들었다는 사항이다. 그는 당시 왕립 미술아카데미에서 주최한 살롱의 미술작품들을 비평하였는데, 글과 그림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 조각들을 묘사하여 미술의 여러 작품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학 작품으로 그 이미지를 전달하였기에 예술비평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얻었다. 즉, 청각예술인 문학과 시각예술인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을 연결시키며 예술비평이라는 장르를 창조함으로써 ‘융복합’의 연구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학문이라는 점과 결부되는데, 그가 오늘날 인문학에 속하는 철학을 하는 자로서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요즘의 '융·복합'은 보다 거대 구조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성에서 대두되는데, 심지어 그에 대한 주창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기는 위정자들에게서까지 발견된다. 그만큼 이 주창이 경제나 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쨌든 사람들의 편리와 안락과 연관된 과학적 발견의 필요성 속에서 주어진 주창이다. 그런데 이 경우 보통 '자연과학 학문1 + 자연과학 학문2 + ...'의 형태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이는 과거 천체망원경의 발명과 지동설의 천문학이 갈릴레이(Galileo Galilei)의 물리학과 케플러(Johannes Kepler)의 수학 수중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위협이나 폐해로 인해 자연과학은 윤리 문제 등에 부딪치며 인문사회학과의 융·복합이 주창되나, 사실 이 문제는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이 특히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야기된 경우가 흔하다.¹⁾ 결국, '자연과학 학문1

- 1) 「과학기술은 세계관과 윤리관념을 지배하는가」라는 논의에서 생명공학자 박병상은 다음과 같이 인문 사회적 성찰 없는 과학기술의 위험을 경고한다. “과학적 성찰 없는 인문 사회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작금의 실용주의 분위기에서 고리타분하다고 배척 받지만 위협하지는 않다. 인문과 사회적 성찰 없는 과학기술은 위험하고 과학기술의 규모가 클수록 그 범위는 확장된다. 시간과 공간과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세계관과 윤리 관념까지 지배해가는 이때, 돈을 못 벌어서 소외되고 있다고 천지사방에 푸념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달리, 더는 배척받지 않는 성찰적 인문사회를 위해 인문사회인들이 힘겹게 제 역할을 다해줄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이 인식 외, 『새로운 인문주의자는 경계를 넘어라』, 고즈원, 2005, pp. 213-214). 인문사회학과의 융·복합에 관심을 가지는 쪽은 이와 같이 자연과학으로 나타난다. 즉, 학문 융·복합을 권하는 쪽은 주로 자연과학 쪽이고, 인문사회학이 자기 쪽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 중 한 가지이자 가장 큰 것이 윤리적 측면인데, 얼마 전 줄기세포 논란, IT의 발전으로 인한 폐해의 부상 등의 문제로 매우 강하게 야기된다. 결국, 과학기술이 문제인 셈이다. 요즘 지식이 돈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이듯, 자연과학이 시장경제주의와 맞물리며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과학기술의 폐해가 나타난다면, 과학기술주의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주의와 합쳐질 때 나타나는 문제(박병상의 표현으로는 ‘실용주의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 보일 수 있다. 어쨌든 이 ‘융·복합’의 문제는 이와 같이 꼭 인문학의 자연과학과의 문제 또는 과학기술과의 문제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고 학문의 분류에서나 경제학과 같은 사회학 등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야기될 수 있으며, 그 예들은 스노우나 윌슨 또는 최재천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 또는 지식인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희익의 『과학과 메타과학』(지식산업사, 1990)에서의 그의 논문들, 최재천과 주일우가 엮은 『지식의 통섭』(이음, 2007)에서의 다양한 논문들, 이인식 외

+ 자연과학 학문2 + ...'의 형태와 '자연과학 + 인문사회학' 형태, 둘 다 과학기술이 문제이다. 한쪽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그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인간의 가치관, 즉 윤리나 도덕문제와 결부시키며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학문 융복합은 우리 학문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일 수도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철학자 역할의 이름으로 행해졌으며²⁾ 결국 학문이 당시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분화되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인문학과 철학의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는 점이 발견된다. 철학은 인문학의 주요 학문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은 모호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반면에, 인문학은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과 관계된 문사철을 일컫는다.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적 성찰은 자연과학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시킨 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인문학의 문사철 중 철학적 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그와 같이 철학은 원래 타 영역과의 경계가 없다. 슈퇴리히가 프란시스 베이컨에게 있어 철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 그는 “목표 자체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경우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없”다는 이 베이컨을 인용하며,³⁾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마치 어떤 평면의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연보다 높이 올라서야 하듯이, 그와 같은 목표를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국한된 개별적 학문분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학문적인 인식목표를 확정하며 동시에 그 보편타당한 방법을 끌어낼 수 있는 좀 더 고차적 국면에 해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철학이다.”⁴⁾

여덟 명의 다분야 학자들이 쓴 『새로운 인문주의자는 경계를 넘어서』(상기인용서적) 속의 논문들을 보라.

- 2) 과거에는 학문적 분류나 경계가 그토록 명확하지 않았고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요즘 매우 좁게 분류되는 학문들 서로들을 넘나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연구자들이 오늘날에 전통적으로 말해지는 ‘철학자’들이다. 다시 말해 수학, 물리학 등으로 나뉘지는 이과 학문과 문학, 사회학 등을 두루 융합시키며 세상을 파악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해부학, 공학과 회화에 능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가들까지를 지칭할 수 있다.
- 3) Bacon, *Über den Wert und die Vermehrung der Wissenschaften I*, 81.
- 4) Hans Joachim Störig,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1970(임석진

오늘날의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고정된 현상뿐만 아니라 그 결과인 ‘두 문화’의 상호 소통불가능성을 한탄하는 스노우는 특히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주시한다.⁵⁾ 에드워드 윌슨 역시, 현대에서는 ‘통섭’, 즉 ‘지식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의 예로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을 든다. 그는 대표적인 모델로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를 꼽는데⁶⁾ 그것은 이 후자가 수학자로 출발하여 역사철학으로 영역을 넓혀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도 18세기 당시에 자연과학과 동시에 인문사회학을 탐구했던 철학자로는 자기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보르도 고등법원장 직의 소송 사무에는 관심도 없이 물리학, 식물학에 몰두하며 산을 오르내리곤 했던 몽테스키외(Montesquieu)도 있다. 그는 밀물, 썰물을 연구하고, 법을 연구하다 『페르시아 사람들의 서한』 같은 소설을 남기며, 결국 법학의 기본서가 되는 『법의 정신(*Esprit des lois*)』을 완성하여 “실험 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의 기초를 세웠다.”⁷⁾ 이를 위해 상대주의적 면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던 몽테스키외가 죽은 뒤, 그의 장례식에 계몽사상가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철학자가 디드로인데, 융복합에 대한 논의의 면에서는 자연과학, 문학, 언급되었던 예술, 게다가 사회학까지도 총망라했던 이 디드로가 차라리 몽테스키외보다 더 적합하게 보인다.⁸⁾ 그의 중심 사상, 다시 말해 그의 철학 중 한 가지가 자연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문을 두고 철학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장에 직

역, 『세계철학사』 하권, 분도출판사, 1978, pp. 45-46).

5) 스노우는 이 융복합 영역에 있어 거의 ‘대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의 글(C. P. Snow, *The Two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오영환에 의한 번역은 1996년에 사이언스북스에서 나온 『두 문화』이다))은 하나의 주장 또는 그런 스타일의 논의이다. 내용은 첫 번째로, 두 문화 융합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과 일치 가능성의 측면, 두 번째로 그에 대한 시도의 측면을 지적하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두 문화가 서로에 대해 인정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6) Edward Osborne Wilson,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 1998(최재천, 장대익 역, 『지식의 대통합.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5, pp. 49-97.)

7) G.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remaniée et complétée par Paul Tuffrau, Hachette, 1951, p. 709.

8) 디드로는 경제학에 ‘디드로 이론’을 남겼다. 그의 『나의 오래된 실내복에 대한 유감』은 유명한 경제 이론으로서, 즉 문학과 심리학과 경제학의 융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접 썼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작금의 과학기술의 폐해에 대한 인문학계의 직접적 반응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두 가지다. 일단 인문학자로서 요즘의 그 정교한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 파악 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그러한 과학기술에 대해 자체가 수많은 갈래의 인문학 속에서 논의를 자기 영역으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 디드로로서도 마찬가지로 부닥친 한계였을 것이다.

디드로에 대해 언급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백과전서(*Encyclopédie*)’이고, 이 “『백과전서』는 계몽시대의 상징”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대의 최대·최고의 산물이다. 종교와 철학이 이전 시대를, 즉 17세기까지를 지배했던 양, 인간의 이성은 18세기를 지배했다. 자기 자리를 ‘과학의 시대’라는 19세기에 물려주기 전에 말이다. 과학과 이성을 수단으로 과거의 관습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며 더 새롭고 더 행복한 시대를 발견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정신의 반영이다. 세기는 이와 같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요구했지만, 일반인은 이 지식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속했다. 이러한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백과전서』를 작성할 계획을 짰다.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더 이상 단 한 사람이 그 모든 양상들을 추적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보편적인 ‘감독(supervision)’을 원했는데, 이 사람에게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기여할 것이다. 이 계획을 짜는 업적을 가지고 27년 동안 『백과전서』의 작성을 감독했던 사람이 디드로이고, 그는 “자기 사상을 비워내는”¹⁰⁾ 정열을 가지고 커다란 본보기가 되는 수많은 다른 글들을 남겼다.

이 다른 글들에서 우리는 『자연해석론(*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이라 이름 붙여진 ‘이상한’¹¹⁾ 소책자 한 편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백과전서』의 제3권과 동시에 1753년 11월에 발간된 것이다. 뵈르 베르니에르는 『자연해석론』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 책은 ‘무질서한 과잉의 애정과 가공할만한 전문

9) “Mag philo : Humanisme et Lumières : raison, foi, superstition”,
http://www2.cndp.fr/magphilo/phil02/dos_inter-Imp.htm.

10) G. Lanson, op. cit., p. 741.

11) Paul Vernière, “Introduction”,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dans les Œuvres philosophiques de Diderot*, Paris, Garnier, 1990, p. 167.

적 성격의 문체’로 인해 이미 연구된 견해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과연 디드로는 수학, 물리학, 자연사를 공부했으며, “당시에 조직되고 펼쳐지던 과학의 가장 최근의 가설들, 가장 암시적인 경험들을 공들여 구상했다.”¹²⁾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해석론』을 통해 자연과학에의 그의 접근부터 살펴려 한다.

II. 자연과학에 대한 디드로의 접근

디드로는 그와 같이 ‘전문적인 성격의 문체’를 이용할 능력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 그는 이과학문 및 자연과학에 대해 그러한 전문적 성격의 지식을 갖추었는가? 장 동브르는 「수학과 만난 디드로의 몇 가지」에서 “디드로는 예를 들어 볼테르(Voltaire)의 일면의 노력을 매우 넘어가며, 뉴턴(Newton)과 레이브니츠(Leibniz)의 혁명적인 예상을 제어했다”고 말하며, 그의 수학 교육 과정을 나열한다.¹³⁾ 그렇게 수학사 자격을 취득한 뒤 디드로는 파리(Paris)에서 책 몇 권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는데, 내복 만드는 직공인 앙투아네뜨(Anne-Toinette)와 결혼하여 가난에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번역물 중 한 가지가 로버트 제임스(Robert James)의 『의학사전(Dictionnaire de médecine)』이다. 또 1745년에는 샤프츠버리(Shaftesbury)의 『공적과 도덕에 관한 에세이(Essai sur le mérite et la vertu)』를 번역하여 간행했는데, 이 번역들은 다음과 같이 그의 사상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그가 1745년에 중요한 에세이를 번역한 샤프츠버리의 작품과 만나면서 그의 신념은 이신론으로 흘렀으며, 그는 무신론과 동시에 종교적 광신을, 신앙의 앙트로포모르피끄(anthropomorphique)¹⁴⁾ 형태를 거부했고, 이 시기에 널리 퍼진 반기독교

12) G. Lanson, op. cit., p. 743.

13) Jean Dhombres, “Quelques rencontres de Diderot avec les mathématiques”, *Denis Diderot 1713-1784 Colloque International*, Paris, Aux Amateurs de livres, 1985, p. 269.

14) 인간과 자연이나 동식물 간의 유사점에 관한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사전에서처럼 ‘신인동형’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리는 원을 그대로

적인 수많은 논증을 자기 식으로 해석했다.”¹⁵⁾

디드로는 1746년 4월에 『철학사상(*Pensées philosophiques*)』 작성을 끝냈는데, 로랑 뒤랑(Laurent Durand)에 의해 6월에 간행되었다. 번역가라는 그의 직업은 이 『철학사상』에서부터 작가라는 직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글은 그가 이신론을 주창하여 7월 7일 빠리 의회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지만 그에게 명성을 얻을 기회도 부여했다. “디드로는 1746년부터 1749년까지, 감각적 이신론에서 체념한 무신론으로 이행되었다.”¹⁶⁾ 그는 1749년 6월 9일 간행된 『장님에게의 서한(*Lettre sur les aveugles*)』 때문에 경험은 인식의 형성에 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증명했고, 결국 경찰총장 로슈브뤼(Lochebrune)에게 잡혀 뱅센느(Vincennes)로 끌려갔다. 여기서의 3개월 동안의 투옥이 그에게 작가라는 직업 초기에 전제주의의 혹독함을 경험하게 했으므로, 자유로운 몸이 된 후 그는 어떤 저의가 있는 글은 더 이상 강행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어쨌든 “디드로는 『장님에게의 서한』을 쓸 때조차 진정으로는 생물학에 입문하지 않은 셈이었다.”¹⁷⁾

디드로는 달랑베르(d'Alembert)와 함께 『백과전서』를 담당했고, 철학과 역사에 관한 몇 가지 주제들과 응용과학에 관한 모든 항목의 책임을 맡았다. 그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위치를 세심하게 잡았고, 작업장들을 방문했으며, 모든 기계와 모든 기술(technique)의 운행을 연구했다. 그는 사변철학의 시대가 끝났고, 경험과학, 특히 생물학의 시대가 도달했음을 알렸고, 마침내 이 생물학의 문제들에 예정된 책, 『자연해석론』을 발표했다는데, 이 책을 위해 “디드로는 파렴치하게도 엄청난 백과전서 서류 속에서” 그 내용을 “건져내었다.”¹⁸⁾ 우리는 이 책에서 산부인과학뿐만 아니라 전기학과 자기학, 충격과 탄성, 철의 야금술에 관한 그의 일곱 가지 ‘추측’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교수

남긴다.

15) Georges Bafaro, “Diderot et Sade, deux visions de la nature”, *Analyses & réflexions sur la nature*, Paris, Ellipses, 1990, p. 36.

16) Jacques Roger, *Les sciences de la vie dans la pensée française du XVIII^e siècle*, Paris, Armand Colin, 1963, p. 598.

17) Ibid., p. 599.

18) P. Vernière, op. cit., p. 168.

의 강의를 따르기보다는 동물을 연구하며 습득할 경험물리학일 것이다.”(185)¹⁹⁾

자끄 로제에 따르면 그는 뱅센느에서 뷔퐁(Buffon)을 읽었다. “뷔퐁 외 누구도 디드로를 이 길로 인도할 수는 없었”던²⁰⁾ 것이다. 로제는 디드로에 대한 뷔퐁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게다가 자신의 『18세기 프랑스 사상에서의 생명 과학』의 세 페이지에서²¹⁾ 그가 뷔퐁의 이론을 초월했다고 평가하는 디드로의 유추를 설명한다. 뷔퐁은 자신의 『자연사(Histoire naturelle)』에서 식물로부터 단호하게 동물을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증명했다. 디드로는 식물로부터 동물로의 연속성과 눈에 띄지 않는 진화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우선 ‘살아있는 물질(matière vivante)’과 ‘날 것의 물질(matière brute)’ 사이의 장벽을 없앴다. 그는 또한 뷔퐁이 최소한 이 시기에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동물’ 사이에 세웠던 장벽을 없앴다. 뷔퐁은 모든 형이상학 밖에서 자기 학문을, 또한 자기만의 학문을 건축하기를 주장했고, 그와 같이 형이상학과 신학에서 학문을 치워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디드로는 반대로, 우선 자신의 의도가 철학적이기에 이러한 분리를 거부한다. 그는 아무 것도 확실한 게 없는 데로 이끄는 추상에 지쳐버렸다. 단 하나 철학만이 단서와 연구방향을 준다. 학문은 우리에게 ‘인식(connaissance)’이란 것을 주는데, 철학은 이 인식 위에서 확고한 형이상학을 세울 것이다. 그만큼 디드로는 자연과학의 영역을 무단침입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의 작업은 그를 학자들, 특히 자연과학자들, 의사들,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과 관련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베넬(Venel), 천문학자 르 모니에(Le Monnier), 생물학자 도방통(Daubenton), 지질광물학자 돌바크(d'Holbach)와 같은 그의 수많은 협력자들을 나열할 수 있다. 그만큼 뷔퐁의 경험과 관찰

19) 우리는 베르니에르가 가르니에 출판사에서 펴낸 『디드로의 철학 작품들(Euvres philosophiques de Diderot, op. cit.)』 속에 있는 『자연해석론(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을 인용하는데, 『디드로의 철학 작품들』의 185쪽을 가리킨다. 『자연해석론』의 글에 대한 인용 표시는 위와 같이 번역문 다음에 괄호들과 그 안에 페이지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논문의 독자들로서는 이러한 방편이 그것을, 인용된 다른 사람들의 글과 구별하는 데 훨씬 용이할 것이라 믿는다.

20) Jacques Roger, op. cit., p. 613.

21) Ibid., pp. 599-601.

은 『자연해석론』의 글에서의 디드로에게 명백히 영향 미쳤다. “이 페이지들에 끊임없이 현존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뷔퐁의 사상이다.”²²⁾

다른 한 편으로, “모페르튀이(Maupertuis)가 프랑스에 온 것”²³⁾ 또한 이 책의 작성에 하나의 역할을 했다.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인 모페르튀이는 『별형상론(Discours sur la figure des astres)』(1732년)에서 뉴턴의 발견을 프랑스에 소개했다. 그와 같이 그는 과학아카데미에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구성된 하나의 세계'에 대해 데카르트(Descartes) 합리론 스타일의 개념을 약평하는 데 이바지했고, 1751년에 “조직체와 생물학의 미해결 문제에 관한 매우 이상한 시도”²⁴⁾ 『시스템화 된 일반 자연론(De universalis naturae systemate)』을 간행했다. 베르니에르는 다음과 같이 라틴어로 된 이 논문이 디드로에게,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문제들 주변에다, 디드로 자신의 과학 문서의 가장 새로운 요소들을 그룹화시킬 생각을 준다고 설명한다. “모페르튀이는 모든 물질에 물리적 특성 삽입을 수용하고, 그와 같이 이질성 현상들, 본능의 영속, 자연물을 지배하는 모방 규칙, 혼혈과 기형의 출현과 소멸을 설명한다. 그는 물질의 단일성 속에서 생명의 단일성을 찾았다. 살아있는 모든 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기관은 세포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체인데, 그 감도는 세포로 구성된 이 모든 감도들의 합계이다.”²⁵⁾ 모페르튀이는 디드로의 능변을 부추기고, 이 후자는 흥분한다. “하나의 가정을 뒤흔들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것이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밀어붙여야만 한다. 우리는 이 방법을 테스트해본다. 에를랑(Erlang) 박사의 가정에 기대어서인데,²⁶⁾ 이상하고도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찬 그 작품은 우리 철학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의 대상은 최대한으로 큰데, 인간의 이해력이 충동원될 정도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일반적 시스템이다.”(224)

디드로는 여기서 생명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형이상학적 시스템을 요약

22) Ibid., p. 603.

23) P. Vernière, op. cit., p. 171.

24) Ibid.

25) Ibid.

26) 모페르튀이는 1751년에 바우만(Baumann)이란 가명과 에를랑겐(Erlangen)의 개시 논설이란 표지로 『시스템화 된 일반 자연론』을 간행했다.

한다. 그는 이 『자연해석론』에서 다음과 같이 바우만 박사의 추론에 기대며 설명한다. “『가소성의 자연물(*Natures plastiques*)』에 대해 불만족이다. 이 가소성의 자연물에서 우리는 물질도 없고 지능도 없는 자연의 모든 경이로운 현상을 실행하게 한다.”(225) 디드로는 “몇 단계의 지능을 물질의 분자들에 어울리게 할 위험”(226)에 대해 말하며 모페르튀이를 반박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디드로가 결코 잊지 않을 필연적인 논문 한 편”을 만난다. “특별한 감수성에서 일반적 감수성으로 그리고 유기 분자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의 이행이 문제이다.”²⁷⁾ 디드로는 결국 스피노자(Spinoza)의 철학에 도달한다.²⁸⁾ “하나의 요소에서 실제로 구별되는 부분들이나 순 예지(銳智)적인 부분들이 그러하고 하나의 동물에서 요소들이 그러한 곳이 요소들이 덜 조직화되지 않은 하나의 전체에서라는 게 좋다면, 그는 이 일반적인 결합의 결론으로, 세상이 한 마리 커다란 동물과 유사하므로 어떤 영혼을 지닌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무한할 수 있으므로, 세상의 이 영혼은 지각하기에 무한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나는 말하지는 않으나 그런 시스템일 수 있다고 말하고, 결국 세상은 신일 수 있다고 말한다.”(229)

III. 자연에 대한 철학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자연에 대한 철학인가? 즉답하자. 『자연해석론』에서 디드로는 자연과학에서의 방법에 대한 질문을

27) P. Vernière, Note,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dans les Œuvres philosophiques de Diderot*, op. cit., p. 228.

28) “죽고 난 후 다소 잘 알려진” 스피노자(1632-1677)의 사상은 “해설가들에 의해 남용적인 방법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견해를 정당화하려 애썼다. (...) 디드로는 『운명론자 자끄(*Jacques le fataliste*)』에서 자기 전 주인의 생각에 각인된 한 주인공을 상상했는데, 이 전 주인을 통해 ‘운이 좋건 말건 여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저 높은 곳에 다 쓰여 있다.’ ‘그가 충심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스피노자에게서, 그, 그가 퍼 올리는’ 신념이다. 18세기에 스피노자 추종자라고 자처하는 것은 무신론적 유토피론을 공언하는 것과 같다.”(Georges Bafaro, op. cit., p. 34.)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 철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제기된 문제인 경험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의 괄목할만한 정의를 사용한다. “우리는 세 가지 원칙적인 방법이 있다. 자연에 대한 관찰과 성찰과 경험이다. 관찰은 사실들을 모은다. 성찰은 그것들을 배합한다. 경험은 배합의 결과를 확인한다. 자연에 대한 관찰은 근면해야 하고, 성찰은 깊어야 하며, 경험은 정확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모인 방법을 보는 건 드물다. 창조적인 재능 역시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다.”(189)

디드로는 우선 여기서 사실들을 모으는 어려움과 그것들의 결합의 어려움을 제시한다. 이해력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감각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억력이 한계를 가지며, 상상력이 섬광을 지니며, 도구들이 불완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은 단지 인간의 내면에만 있지 않다. 디드로는 현상들이 무한하고, 원인들이 숨어있으며, 아마 형태가 과도적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경험을 위한 견본을 선정하기 시작한다. 실험적인 방법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정된 성찰이다. 더딘 경험과 한정된 성찰이 바로 ‘수단’인데, “이 수단으로 철학은 세상을 뒤적거릴 작정이었다.”(189)

그렇지만 그는 성찰을 위해서는 일벌의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진실에 대한 조사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우리 방법의 수가 얼마나 국한되어 있는지를 쉽게 느낄 수 없다. 결국 심사숙고할 땐 감각을 버리고, 감각할 땐 심사숙고하지 말아야 하는 데로 모든 게 귀착해버린다.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고 또 끊임없이 거기서 되돌아 나가버리는 것 말이다.”(185) 로제는 벌의 이미지는 디드로가 베이컨에게서 빌린 것이고, 베이컨의 벌 이미지기²⁹⁾

29) “과학을 취급하려드는 철학자들은 경험주의자와 독단론자, 이 두 가지 급으로 나뉜다. 경험주의자는 개미와 비슷하여 먹이를 모으고 다음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거미와 같은 독단론자는 줄을 짜는데, 그 물질은 자기 고유한 본질로부터 추출된다. 벌은 주변을 지키며, 말과 정원의 꽃들로부터 첫 물질을 떼 낸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고유한 어떤 기술로 그것을 채집하고 소화한다. 진짜 철학은 유사한 어떤 것을 행한다. 오로지 또 원칙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진짜 철학이 자연사(史)에서 꺼내는 이 물질은 이 두 가지 출처에서 진짜 철학을 퍼내듯 기억력에서 진짜 철학을 던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또한 철학을 하고 소화시킨 다음에 진짜 철학을 상점에 진열한다.” (『노뎀 오르가눔(Novum Organum)』, 1. I, § XCV in Francis Bacon, *Œuvres, II*, traduites par M. F. Rivaux, Paris, Charpentier, 1843, pp. 56-57.)

디드로의 것보다 훨씬 명확하다고 말한다.³⁰⁾ 베이컨은 과학을 취급하려는 철학자들을 곤충들의 작업에 비교했고, 그중에서도 벌의 작업과 결과는 '진짜 철학'의 방법에 비교되었는데, 로제가 암시하는 바는 이와 같은 베이컨에 기대는 디드로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즉, 그가 시사하는 것은 '진짜 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해석론』의 제16항목에서 제23항목까지에서 베이컨의 「노뭍 오르가눔」의 첫 번째 권에서³¹⁾ 빌린 주제인, 자연과학에서의 경험과 이성의 필수적 결합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디드로는 『자연해석론』에서 도덕적인 충고(‘명확성’-‘겸손’-‘협력’)를 ‘기술적인(technique) 충고’에 섞는다. 이는 “과학적 경험의 조건들에 관해서인데, 모페르튀이의 시스템에 대한 논리적 결과에 관한 하나의 긴 논의 때문에 절단된” 기술적 충고이다.³²⁾ 마지막으로 그는 “원인들에 대한 스킨라 철학 스타일의 연구를 실증학의 느리고도 확실한 진척에 엄격하게 대립시킨” 다음에 열다섯 가지 질문을 놓는다. “물질의 구성, 자연의 단일성, 살아있는 물질의 진화나 불변, 생명의 일반적 문제라는, 이 진척에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성가신 점들에 관해서”이다.³³⁾ 자끄 로제는 『18세기 프랑스 사상에서의 생명과학』에서 『자연해석론』의 끝을 장식하는 이 질문들이 디드로의 초조감을 누설한다고 말한다. 즉, 질문들이 대답을 강요한다는 것인데, 그 대답은 15년 후, 김계영이 디드로가 “철학을 문학의 형태로 기술한 뛰어난 작품”이라³⁴⁾ 말한 『달랑베르의 꿈(Revê de d'Alembert)』과 함께 올 것이다.³⁵⁾

어쨌든 그가 자연에 대한 철학을 논함은 이와 같이 '진짜 철학'과 경험의 중요성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해석론』의 이 글은 철학이

30) Jacques Roger, *Les sciences de la vie dans la pensée française du XVIII^e siècle*, op. cit., pp. 604-605.

31) Chapitre 95(op. cit., p. 102 sq.)

32) P. Vernière, “Introduction”,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dans les Œuvres philosophiques de Diderot*, op. cit., p. 168.

33) Ibid.

34) 김계영, 「꿈과 대화의 글쓰기」, 『달랑베르의 꿈』, 한길사, 2006, p. 14.

35) 이은주 역시 『달랑베르의 꿈』에서 디드로가 무기물에서 유기체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논의는 “이미 『자연해석에 관한 사색』에서 확실하게 표명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디드로, 사상과 문학』, 건국대출판부, 1997, pp. 45-46.)

기에는 그와 같이 너무 창조적인 것은 아닐까? 이 글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생긴다. 아마도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자연과학자들의 이론들에서 나온다. 책의 의향은 단순한 과학적 방법 문제로 보기엔 너무 멀리 가고, 이 작품은 부정확성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진행형이고 논쟁적이기 조차 하다. 그러면 디드로가 왜 이 ‘이상한’ 책을 썼는가에 대해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IV. 따라서 디드로에게 ‘자연’이란?

그는 『자연해석론』에다 특히 철학적 의미의 자연(Nature)들 중 한 가지를 부여하려 했다. 랑송은 디드로의 자연을, 무신론과 반사회성, 과학이라는 이 세 가지 상(象)에 비추어 고려했다. 그러나 왜 우리는 항상 ‘자연’이라는 이 문제적인 단어로 되돌아오는가? 사전의 정의조차 모호하다. ‘자연’이란 낱말은 형언할 수 없는 총체의 의미에서 또는 어떤 절대적 표현에 한정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텍스트(texte)로서, 그 수용에 의해 이해될 수 있거나 국한될 수 있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이나 '인위'의 반대개념으로 여겨질 이 ‘자연’이란 단어가 18세기에는 철학자들에게 하나의 미묘한 문제로 민감하게 제기되었고,³⁶⁾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유명한 루소를 잘 알고 있다. 루소 자신은 “아마 자연이란 말은 너무 어렵듯한 의미를 지닌다”³⁷⁾고 말하며 이 ‘자연’이란 말을 확고부동하게 하려 애썼다. 그러나 장 에라르스는 “새로운 사상들로 풍부한 18세기는 자연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³⁸⁾ 조르주 바파로는 다음과 같이 ‘자연’이란 이 낱말을 달랑베르와

36) 이시아 벌린은 칸트의 도덕적 관점을 논하며 “어떤 학자들은 18세기에만 ‘자연’이란 단어에 덧붙여진 의미를 거의 2백 가지나 찾아냈다”고 소개하고 있다. (Isaiah Berlin, *The roots of romantism*, 1999; 강유원, 나현영 역, 『낭만주의의 뿌리』, 이제이북스, 2005, p. 124.)

37) Jean-Jacques Rousseau, *Emile dans Œuvres Complètes*, vol 3, Paris, Seuil, 1971, p. 20.

38) Jean Ehrard, *L'idée de Nature en France dans la première moitié du XVIII^e siècle*, t. I, Paris, S.E.V.P.E.N., 1963, p. 11.

디드로의 『백과전서』에서 찾는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자연’이란 개념에 관해 깊이 생각하기를 원했으므로,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참조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자연」 항목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곳, 즉 볼테르의 『철학사전 (Dictionnaire philosophique)』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대로 우리는 디드로의 펜으로 된 「자연법」과 「자연적 자주성」, 「동물」 및 조꾸르 기사(Chevalier de Jaucourt)가 서명한 「자연적 평등」과 「자연적 자유」를 발견한다. 얻은 정보에 의하면 뷔퐁은 자신의 전집(全集)을 편찬하려는 편집장에 의해 제목이 ‘자연’인 란(欄)을 작성하는 업무가 맡겨졌으나 아마 이 계획을 실현시키지는 않았다. 그와 같이 자연은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존재들에 대한 엄청난 영역과 같이 고려되어 총체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자리를 가질 수 없다.”³⁹⁾

그럼에도 우리는 18세기에서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한다. 롤랑 데스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연에 대한 인식에 있어 18세기는 17세기에서 물려받은 풍부한 발견 평가(서)를 상속 받았고, 과학의 확산과 교육을 위해 창조된 새로운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⁴⁰⁾ 그렇다면 우리는 17세기에서의 ‘자연’이란 낱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장 에라르르는 다행히도 18세기와 너무나 가까운 시기에서의 정의를 찾아냈다. “1694년 프랑스 아카데미의 『사전(Dictionnaire)』은 ‘자연’이란 낱말에서 일곱 가지 의미를 구별한다.” 다음과 같다.

1. 우주의 총체 / 창조된 모든 사물.
2. “이 우주적인 정신인데, 창조된 각 사물에 널리 퍼져 있고, 또 그것에 의해 이 모든 사물들은 자신들의 시작과 중간 과정과 끝을 가진다.”
3. '각 존재의 시행에 대한 내적 원칙.'
4. “운동인데, 이에 의해 각 인간은 자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일로 옮겨진다.”

39) Georges Bafaro, “Diderot et Sade, deux visions de la nature”, *Analyses & réflexions sur la nature*, op. cit., p. 36.

40) Roland Desné, *La philosophie française au XVIII^e siècle*, Paris, Manabout, 1979, p. 253.

5. 복잡성 / 기질.
6. 영혼의 어떠한 배치.
7. 은총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자연 상태.

“3번과 4, 5, 6번 의미들은 두 번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밖에 아니다. 진정한 분리는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의미 사이에 있다. 즉, 수동적 ‘자연’이나 능동적 ‘자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수용의 특별한 경우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것이 실상 가장 혼란 것이라는 걸 증명한다.”⁴¹⁾

17세기가 그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18세기의 자연이 꼭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본다. 18세기 문학을 살피는 연구를 통해보자. 문학 연구자 역시 ‘자연’ 개념의 정의에 부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철학적 개념일지라도 18세기 문학의 많은 경우가 철학자들로부터 유래하는 이상, 이 일에는 어긋남이 별로 없다. 18세기 철학자들은 자신의 철학을 알리기 위하여나 증명하기 위하여나 또는 대중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학작품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는 문경자가 말하듯이, “계몽시대가 (...) 철학의 시대만이 아니라, (...) 유토피아 문학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사유하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 시대이기도”⁴²⁾ 했기 때문이다.

18세기는 자연에 대해 샤프팡티에 오누이가 옮겨놓은 이와 같은 의미를 남긴다.

1. 인간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질.
2. (문명과 문화에 대립하여) 세상의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는 첫 번째 원칙.
3. 모델로서, 예술은 그와 같이 모방해야 한다.⁴³⁾

하지만 특별히 디드로의 경우로 오면서 다시 애매모호해지며, 우리는 랑송

41) Jean Ehrard, op. cit., p. 16.

42) 문경자, 「18세기 프랑스 유토피아 문학의 역설 - 계몽의 기획에 대한 진단, 『불어불문학 연구』, 91호, 한국불어불문학회, 2012, p. 50.

43) Michel & Jeanne Charpentier, *Littérature XVIII^e siècle*, Paris, Nathan, 1989, p. 484.

과 바파로, 특히 자끄 로제, 또 많은 다른 이들의 논문 및 글들에서 그의 낱말 ‘자연’의 사용에 대한 참조사항을 찾게 된다. 두 번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며 요약적으로 논설한다. “디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의 독창성과 그의 과감함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르네상스 이후, 자연에 대한 철학자들에게서 지지 받는 논문들을 대충 훑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이 과정에서 ‘자연주의적인’ 독트린들에 관한 것밖에는 붙들지 않을 것이다.”⁴⁴⁾ 결과적으로 바파로 및 베르니에르는 바뤼흐 스피노자의 사상에 관해 다시 가르쳐준다. “한 번 더 스피노자류의 환영이 ‘자연과 함께하는 하느님(Deus sive natura)’과 함께 나타난다.”⁴⁵⁾ 로제는 『장님에게의 서한』까지 디드로의 생각은 자연주의자들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가 “18세기 전반기의 자연주의자들은 유물론에 대해 큰 공을 지닌다”고 말할 때, 『자연해석론』을 예고한다고 지적한다.⁴⁶⁾

디드로의 작품에서와 특히, “내가 쓰려는 것은 자연에 대해서다”(178)라는 『자연해석론』의 첫 문장에서 이 ‘자연’이란 용어는 요컨대 앞에서 언급된 샤르팡티에의 의미들 보다 훨씬 구체적인 듯하면서도 여전히 막연하다. 로제는 『자연해석론』의 제목이 베이컨에게서 차용되었다고 말한다. 베르니에르 또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네종(Naigeon)(A.T., t. II, p. 3) 다음에 아세자(Assézat)가 알아보게 했듯이, 디드로의 제목 자체는 1620년의 「노뭉 오르가눔」을 준비했던 1607년의 「자연의 해석에 관한 생각과 결론(Cogitata et visa de interpretatione naturae)」의 제목을 다시 취한다.”⁴⁷⁾ 우리는 이 작품에서 베이컨의 철학적 의향을, 다시 말해 경험을 다시 본다.

그렇다면 디드로의 ‘자연’은 자신의 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는 우선 『자연해석론』의 항목 「자연 철학을 연구하려는 청년들에게」에서 자연에 대

44) Georges Bafaro, “Diderot et Sade, deux visions de la nature”, *Analyses & réflexions sur la nature*, op. cit., p. 36.

45) P. Vernière, “Introduction”,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dans les Œuvres philosophiques de Diderot*, op. cit., p. 172.

46) Jacques Roger, op. cit., p. 599.

47) P. Vernière, “Introduction”,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dans les Œuvres philosophiques de Diderot*, op. cit., p. 170.

한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더 능란한 사람은 자네에게 자연의 힘을 인정하도록 가르칠 것일세.”(175) 그러나 그는 「자연 철학을 연구하려는 청년들에게」의 추신에서 하느님을 자연과 동일시하는 바로 위의 이 유명한 공식을 단번에 뒤집어버린다. “‘자연’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까지고 염두에 두라.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까지고 염두에 두라.”(175) 디드로는 자연의 우월성에 대해밖에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연의 힘과 지혜를 연구해야 한다. 자연은 이제 연구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연은 더 이상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다. 게다가 디드로가 「자연 철학을 연구하려는 청년들에게」의 추신에 “‘가정’이 ‘사실’은 아니”(175)라는 다른 원칙을 추가한다.

수많은 사실을 확인하려 애쓴 후, 『자연해석론』의 말미에서야 디드로 스스로가 ‘자연’이라 일컬으려 하는 것에 대한 문장이 발견된다. “나는 자연 현상들의 일반적 산출에 필요한 다양한 이질적 물질들을 ‘요소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또 요소들이 결합한 현행의 일반적 결과 또는 연쇄적인 일반적 결과들을 ‘자연’이라 이를 것이다.”(239) 디드로가 유물론자라면 이와 같이 자연이 연구대상이 되면서다.

V. 이성철학에서 경험철학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에도 여러 가지다. 디드로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행히도 자연보다 자신을 숙고하는 게 더 쉽고 더 짧다.”(185) 1753년까지 자연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디드로는 형이상학에 복종하는 과학을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해석론』에서의 수학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비록 동브르가 “디드로가 자연과학에서 혹은 더 일반적으로 『자연해석론』에서 수학의 역할에 끌려가게 되는 인식론적 분석에 대한 더 건전한”⁴⁸⁾ 하나의 접근이라고 간주할지라도, 동브르는 우선 “국민이 무식한 사람들이거

48) Jean Dhombres, op. cit., p. 271.

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이들에게 기하학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학문의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라는 디드로의 말을 인용한 후, 얼마간 수학을 만나는 디드로를 두드러지게 한다. “초보적인 수학의 유용성 저쪽에는 또 정신을 논리적 의미와 엄정함으로 형성하는 저쪽에는 또 다른 하나의 유용성이 있는데, 디드로에 의해 내세워진 것으로, 계몽의 파급에 대한 유용성이다.”⁴⁹⁾ 만일 디드로가 이 말을 듣는다면 놀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디드로가 수학과 만나는 몇 가지에서 그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디드로가 수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수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운동이나 그것을 촉발시키는 힘에 대한 완전한 인식에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수많은 생각과 자신의 도구 부재에 관한 사색을 억제한다. 베르니에르의 지적과 같이, 대립은 “평범해지나 1754년에 학문과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고,”⁵⁰⁾ 우리는 대립을 『자연해석론』의 처음 다섯 개의 장 여기저기서와 『백과전서』의 항목 「예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적인 기하학밖에 지니지 못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어설픈 사람이다. (...) 경험 기하학밖에 지니지 못하는 예술가는 매우 편협한 노동자이다.”⁵¹⁾

그런데 이는 디드로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다른 이에 있어서는 특히 뷔퐁의 1749년 『자연사』의 첫 담론에서 그러한데, 베르니에르를 통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적 진실은 (...) 언제나 정확하고 설득력 있다는 유리한 점을 가지나 추상적이고 지적이며 독단적이고, 전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했던 추측에 기초가 되는 대신에, 사실에밖에는 근거하지 않는다.”⁵²⁾ 비록 훨씬 나중이지만 라 메트리 역시 그러하다. 그는 1796년의 『영혼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수학의 “보잘 것 없는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벌판 끝에서 하늘을 붙잡는다고 믿는 아이들과 비슷하게, 더 큰 대상들에서, 예를 들면, 형이상학, 도덕, 생리학, 문학에서 지내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매우 큰

49) Ibid.

50) P. Vernière, Note,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dans les Œuvres philosophiques de Diderot*, op. cit., p. 177.

51) “Art”, *Encyclopédie* (Cf. P. Vernière, *ibid.*)

52) G. Buffon, *Histoire naturelle*, 1749 (Cf. P. Vernière, *ibid.*, p. 178.)

사상의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⁵³⁾

그렇다면 디드로가 응용과학 또는 기술로부터 수학을 분리하려는 게 사실인가? 그는 인간의 운명을 개량하기 위한 사변적이고 실험적인 지혜의 결합밖에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세계나 우리의 다양한 삶은 수학자가 비록 정확하게 할지라도 여백의 페이지를 숫자들과 공식들로 채우는 것과 비교되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디드로는 나중에 1760년 8월 31일자 소피 볼랑(Sophie Volland)에게 한 편지에서 수학자 달랑베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가 방정식으로 그친다니, 그건 그의 운입니다.”⁵⁴⁾ 디드로는 지금까지 학문의 왕좌를 누렸던 수학을 넘어가길 회구한다. 우리는 그가 1758년 2월 19일에 볼테르에게 쓴 편지에서 달랑베르에게 한 비난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언제나 달랑베르가 문제이고, 또 그의 명성을 비난했다. “수학의 치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유행은 변했습니다. 지배하는 것은 자연사와 문학의 유행입니다. 달랑베르가 그 나이에 자연사 연구에 몸 바치지는 않을 것이고, 자기 명성에 상응할만한 문학작품을 만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⁵⁵⁾

디드로는 경험철학과 이성철학, 이 두 종류의 철학을 구별하고, 수학과 이성철학은 그에게 있어 같은 것이 된다. “한 가지는 두 눈에 봉대를 감고 언제나 암중모색하며 걸으며, 자기 두 손에 떨어지는 모든 것을 붙잡으며, 마지막에는 보석 같은 것을 만난다.”(192) 이것이 바로 이성철학이며, “이 보석 같은 물질을 주위 담고 그것으로 하나의 불꽃을 만들려 노력하는”(192) 경험철학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말한다. “경이로움은 흔히, 그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여러 기적들을 우리가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말하자면, 자연에서 우리가 현상들의 수를 헤아리는 특별한 행위들에 대해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자연은 어쩌면 결코 단 하나만의 행위밖에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186) 경이로움은 그것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경이로움들을 야기한다. 추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자연마냥. 궁극원인들을

53) La Mettrie, *Traité de l'âme*, 1796 (Cf. P. Vernière, *ibid.*)

54) Denis Diderot, *Correspondance*, recueillie, établie et annotée par Georges Roth, t. III, Les Editions de Minuit, 1957, p. 46.

55) *Ibid.*, t. II, Les Editions de Minuit, 1956, p. 38.

무모하게 옹호하는 몇몇 사람들은 “마호메트의 감탄을 읊기는 데 동참하는 대신에, 또 밤중에 하늘에 빛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보고 ‘하늘은 신의 영광을 나타낸다(Coeli enarrant gloriam Dei)’고 외치는 대신에, 자신들의 짐작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에 빠졌다. 그들은 자연의 존재 자체들에서 전능한 신을 경배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상상의 환영 앞에서 굽실거렸다.”(237) 그러므로 이성철학자들로서는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빛을 분해할 수 없다’고”(193) 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지만 디드로는 우리 인식에서 사물들이 형성되는 것을 진지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사물들이 우리의 이해력에만 있는 만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견해들이다.” 그러나 우리 견해들은 자연 앞에서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것은 그냥 견해들로서, 사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일치될 수도 어긋날 수도 있다.” 디드로는 그것들이 외부 존재들에 관련되어서만 확실해진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한 쪽 끝에서는 관찰을, 그리고 다른 쪽 끝에서는 경험을 붙잡는, 하나의 연속된 사슬의 경험들에 의해서나 하나의 연속된 사슬의 추론들에 의해 행해진다.”(184) 우리는 하나의 유용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관찰과 경험의 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한다. 경험적 방법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찰은 모든 과학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관찰은 감각의 습관적인 사용(usage)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경험은 지속된 소비(dépenses)를 강하게 요구한다.”(195)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견다운 발견을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디드로는 『자연해석론』의 제28장과 제29장에서 “죽어가며 자식들에게 발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고 말하는 이 아버지”(195-196)의 충고와 그 효과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 이 예는 경험이 관찰과 성찰에 연결되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경험은 “자기 활동을 무한히 증가시킨다. 그것은 줄기차게 행동 중에 있다.”(193) 경험철학자들로서 경험은 곧 자신들의 판단의 기초가 될 것이다. 반면에, 더 사변적인 이성철학자들은 유사성에 기초된다는 점을 강조하자. 다음으로 외적 경험이 내적 성찰과 조화를 이룰 때와 스스로의 활동으로나 넘쳐나는 관찰 덕분에 증가된 경험이 발견의 직관을 만날 때, 우리는 경험철학에 대한 하나의 좋은 모델을 가진다. 경험철학은 “그 다음으로 갑자기 프리즘을 보여주고 ‘빛은

분해된다’고 말한다.”(193)

베르니에르에 따르면, 뉴턴은 1662년에 『빛과 색에 관한 새로운 이론(*A new theory about light and colours*)』에서 빛의 분해에 필수적인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고, 거기서 우리는 경험철학에 대한 하나의 좋은 모델을 취한다. 이 영국인은 추론을 관찰에 적용했고 수학적 계산을 천문학에 도입했다. 그는 사과의 단순한 추락에서 출발하여 만유인력의 법칙에 다다른다. 뉴턴의 생각은 마침내 디드로가 생각하는 경험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되었듯이 모페르튀이를 통해서였다.

이제 디드로는 자신의 여섯 번째 짐작들 중 한 가지에서 충격에 대한, 다시 말해 타격 받은 물체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분포에 대한 일반론을 찾는다. 여기서 그는 마찬가지로 ‘모든 덩어리 속에서의 단일 형태의 운동의 분포’에⁵⁶⁾ 대한 데카르트 철학 스타일의 생각을 반박한다. “기하학자는 타격 받은 물체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분포에 대한 일반론을 찾기 위해 떨리는 줄에 대해 프리즘, 구체, 실린더 모양으로 산술을 펼치는 것 외 달리 할 일이 없다.”(206) 디드로는 일곱 번째 짐작을 마치고 나서 대중 철학에 대해 말하기에 급급해 한다. “과학의 진보에 이토록 대립된 이 미개발 지구는 모든 대중들에게서 멀리 있어라! 일과 방법을 드러내야 한다. 나는 새로운 산술을 발견했던 으뜸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한 발명에서 위대하다고 본다! (...) 만일 뉴턴이 자신의 영광과 진실에 대한 관심이 요구하듯이 말하는 데 급급했다면, 레이브니츠는 발명가의 이름을 그와 함께 나누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인이 스스로 해냈던 놀라운 응용들로 학자들을 놀라게 하는데 만족을 느꼈던 동안에 독일인은 도구를 상상했다.”(214-215) 디드로는 자연에 대한 철학이 발견에 비해, 또는 빈 페이지에 문자나 숫자를 가득 채우는 데 만족하는 학문에 비해 우월성을 가진 철학이길 원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애매모호함에 부딪칠 수도 있다. “우리가 ‘위대한 장인들의 가식’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애매모호함이다. 그들이 국민과 자연 사이에서 건어 올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베일이다. 나는 우리가 유명한 이름에 바쳐야 하는 존경심 없이 말할 것이다. 슈탈(Stahl)

56) P. Vernière, “Note”,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dans les Œuvres philosophiques de Diderot*, op. cit., p. 207.

의 몇 작품과 뉴턴의 『수학의 원칙(*principes mathématiques*)』을 지배하는 애매모호함이 그와 같다고.”(215)

디드로는 뉴턴의 위대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발견하는 중에는 직관밖에 가지지 않았고 이 직관을 적용할 줄 몰랐다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디드로는 자연과학이 기교를 도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로서는 자연은 철학의 실험실이다. “철학하는 진정한 방식은 바로 이해를 이해에 적용하는 데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적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해와 경험은 감각에 적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감각은 자연에 적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자연은 도구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도구는 기술(*arts*)에 대한 연구와 완성에 적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에게 던져질 것인데 그들이 철학을 존경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다.”(191) 그러므로 그는 인성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이란 것을 믿는다. “일반의 눈에 진정으로 평가할만한 철학이 되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191)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중철학이 되도록 서두릅시다.”(216) 그러므로 그는 자연에 대한 철학의 보편성이란 것에 대해 생각한다. “일반화의 행위는 개념들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이 민감하게 지니는 모든 것에서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 이 행위가 진척될수록 형이하의 유령은 사라진다.”(216) 자연은 도구들의 창조에 비례하여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예를 들어 프리즘은 빛의 속성을 명확하게 하는 촉매이다. 디드로가 한 자연에 대한 철학이라는 이 발견과 이 유용성에 대한 직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18세기의 사상이란 힘 중 한 가지일 것이다. 그 힘은 인간 또는 인간의 삶을 위해 수고한다. 자연은 우리 삶의 실험극이 된다. “우리는 만일 밀랍으로 채워진 벌통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헛되이 땅을 매우 친 격이다. 우리는 무용한 밀랍 무더기를 잘 만들었다. 그것으로 광선들을 만들 줄 모른다면 말이다.”(185)

VI. 나오며

자연과학과의 융복합에 있어 디드로로서는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

에 철학 위에서 발견된다. 그는 수학을 공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백과전서』 때문이든 간에 자연과학자 뷔퐁과 모페르튀이를 읽고 지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자연해석론』에서 그들을 반박하려까지 했다. 반박은 그가 아직도 형이상학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자연과학자가 되려했던 것이 아니라 철학에 머무르길 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추상적 사변철학을 거부한다. 그는 이성이란 정신의 빛을 다양한 광선으로 확산시키며, 철학의 대상으로 자연과학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또 이 광선들을 경험철학이라는 점에 집중시킨다. 디드로의 정신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이라는 이것으로 가득 찬다. 그는 볼테르가 뉴턴을, “장님들을 눈 뜨게 한”⁵⁷⁾ 데카르트와 비교하며 뉴턴에게 찬사를 바치며 말하는 ‘기름 묻은 종이’처럼 철학한다. “자연에서 색의 원인은 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순서로 광선을 반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흡수하도록 물체를 배치시키는 것 외 아무 것도 아닙니다. (...) 종이는 말랐을 때 빛을 반사하는데, 기름이 묻었을 때는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기름은 분자간의 간격들을 채우므로 이 분자 간 간격들을 매우 더 작게 만듭니다.”⁵⁸⁾ 디드로는 이성과 경험철학이라는 것으로 기름기가 낀 정신을 가졌는데, 이는 디드로에게서 영국 쪽 베이컨류의 경험론이 구체적으로 수용되며 이 합리론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의미다.

디드로의 자연 개념, 즉 스피노자 스타일의 유물론은 경험철학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디드로는 웅변적으로 기술을 보편화시키려 노력했는데, 그 유용성을 지적하면서다. 과학과 경험이라는 이 사상의 스펙트럼에 의해 기술의 확산, 따라서 그 깊이나 다양성에 대해 지적한다. 또 그는 우리에게 ‘무질서한 과잉의 애정과 가공할만한 전문적 성격의 문체’밖에는 보여줄 수 없는 글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으로부터 생겨나는 은어의 전문성을 보편화시켜야만 했다. 현행의 삶과 기술적인 예술(art technique)에 대한, 마지막으로 과학적 정신에 대한 실험장인 아틀리에 말이다. 그리고 과학의 발견을 기다려 그 의미를 적어가는 것이 그의 철학이 되는데, 이때 인문학이 자연과학과 합쳐지며 융복합을 이룬다.

57) Voltaire, *Lettres philosophiques*, Paris, Garnier, 1988, p. 76.

58) Ibid., pp. 92-93.

그래서 『자연해석론』은 『백과전서』와 목적을 함께 한다. 『백과전서』는 언급했다시피 18세기의 결산이자 19세기 과학의 시대를 열어주는 동력이었다. 『자연해석론』에서의 디드로의 목적도 결국 『백과전서』의 목적처럼⁵⁹⁾ 과학적 현행에 호소하는 데 있고 인간의 운명을 개량하는 데 있다. 디드로는 그렇게 정복적인 열기의 어조로 학문에 대해 말했다. 이은주 역시 『자연해석론』은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연구방법이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백과전서』의 정신과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⁶⁰⁾ 디드로는 학문의 방법과 방향과 결과를 착상했다. 그의 자연(Nature) 중 한 가지는 학문과 철학 사이에 있는 질문이었다. 과학에 대한 그의 글은 우리에게 사상의 확산과 동시에 지식의 보급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과학의 대중화로 이끈다. 그것은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에게 과학의 유용성을 부여한다.

❖ 참 고 문 헌

- 스노우, 『두 문화』, 오영환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1996 (SNOW C. P., *The Two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 윌슨, 『지식의 대통합. 통섭』, 최재천 & 장대익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5 (WILSON Edward Osborne,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 1998).

59) 『백과전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과연 『백과전서』의 목적은 지상에 흩어진 인식들을 모으는 데 있다. 그 일반적 시스템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데 있고, 그것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하는 데 있다. 이어질 세기마다의 작업들을 위해, 우리 자손들이 더 교육 받아 더 덕성스런 동시에 더 행복하게 되기 위해, 또 우리가 인류에 대해 커다란 공적을 남기지 않고 죽지는 않기 위해 말이다”(Diderot & D'Alembert, Article “Encyclopédie”, *L'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t. V, Paris, Briasson, David l'aîné, Le Breton et Durand, 1755 : Vol. I, New York, Peadex Microprint Corporation, New York, 1963, p. 1156).

60) 상기인용서적, p. 70.

- 이은주, 『디드로, 사상과 문학』, 서울, 건국대출판부, 1997.
- 이인식 외, 『새로운 인문주의자는 경계를 넘어서라』, 서울, 고즈윈, 2005.
- 장희익, 『과학과 메타과학』, 서울, 지식산업사, 1990.
- 최재천 & 주일우 엮음, 『지식의 통섭』, 서울, 이음, 2007.
- BAFARO, Georges, "Diderot et Sade, deux visions de la nature", *Analyses & réflexions sur la nature*, Paris, Ellipses, 1990, pp. 33-46.
- CHARPENTIER, Michel & Jeanne, *Littérature XVIII^e siècle*, Paris, Nathan, 1989.
- DESNE, Roland, *La philosophie française au XVIII^e siècle*, Paris, Manabout, 1979.
- DHOMBRES, Jean, "Quelques rencontres de Diderot avec les mathématiques", *Denis Diderot 1713-1784 Colloque International*, Paris, Aux Amateurs de livres, 1985, pp. 269-280.
- EHRARD, Jean, *L'idée de Nature en France dans la première moitié du XVIII^e siècle*, Paris, S.E.V.P.E.N., 1963.
- Encyclopaedia Universalis*, corpus 14, Paris, 1989, pp. 693-698.
- LANSON, G.,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remaniée et complétée par Paul Tuffrau, Paris, Hachette, 1951, pp. 727-754.
- MAYER, Jean, "Les êtres et les monstres dans la philosophie de Diderot", *Denis Diderot 1713-1784 Colloque International*, Paris, Aux Amateurs de livres, 1985, pp. 281-286.
- REY, Roselyne, "Diderot et la médecine de l'esprit", *Denis Diderot 1713-1784 Colloque International*, Paris, Aux Amateurs de livres, 1985, pp. 287-296.
- ROGER, Jacques, *Les sciences de la vie dans la pensée française du XVIII^e siècle*, Paris, Armand Colin, 1963, pp. 585-682.
- VOLTAIRE, *Lettres philosophiques*, Edition de R. Naves, Paris, Garnier, 1988.

❖ ABSTRACT

Interdisciplinary and philosophy of Diderot Considered
through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PAEK, Chan-Wook

Recently, because of the danger and damages that following the steady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natural science is faced with many humane and ethical problems. So it is asserted the interdisciplinary with social and human science. However, it comes commonly that the ethical issues such as world view and one's view of life caused the development of sociology, especially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But in many cases, the interdisciplinary can be useful for widen the view of scholars.

The interdisciplinary is actually connected with the problems of philosophy, and located in that domain. In this case, this is noticed as a model to the philosophers in 18th century, especially Denis Diderot. Diderot published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during editing the *Encyclopedia*, from there he picked out the contents from piles of documents of *Encyclopedia*. Even though the contents or opinions of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are inaccuracy or erroneous, it shows that how human-social science and natural science encountered.

Diderot studied mathematics and then Diderot accepted to the natural science proposal, he approaches philosophy with translate English books to the French. Next he understood natural science by reading Buffon and Maupertuis, and during working for *Encyclopedia*, he possessed his knowledge that he can claim his opinion to other scholars. However in this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Diderot who sometimes rebutted other scholars' theory and demonstration, tried to build a philosophy on metaphysics in order to it was important for himself that he imposed the methods of science and importance of experience.

Anyhow, this *D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cause consider the recognition

of Diderot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and is suggested as a model about his Nature. This mean that it is an expression of his philosophy, and the content is found from natural philosophy and empirical philosophy. Like giving these attache the importance of method study for science and technique, these are targeted the promotion of popularization of natural-science and scientific-technology. Also it advocates fulfilling from reasonable philosophy to empirical philosophy. Therefore, the philosophy which was speculative and abstracted became his philosophy which was writing the meaning, as waiting the discovery of science. And at that time, the humanities made interdisciplinary with natural science.

Key Words

자연철학, 이성철학, 경험철학, 학문, 경험

natural philosophy, reasonable philosophy, empirical philosophy, science, experience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